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9 / 돈암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건축물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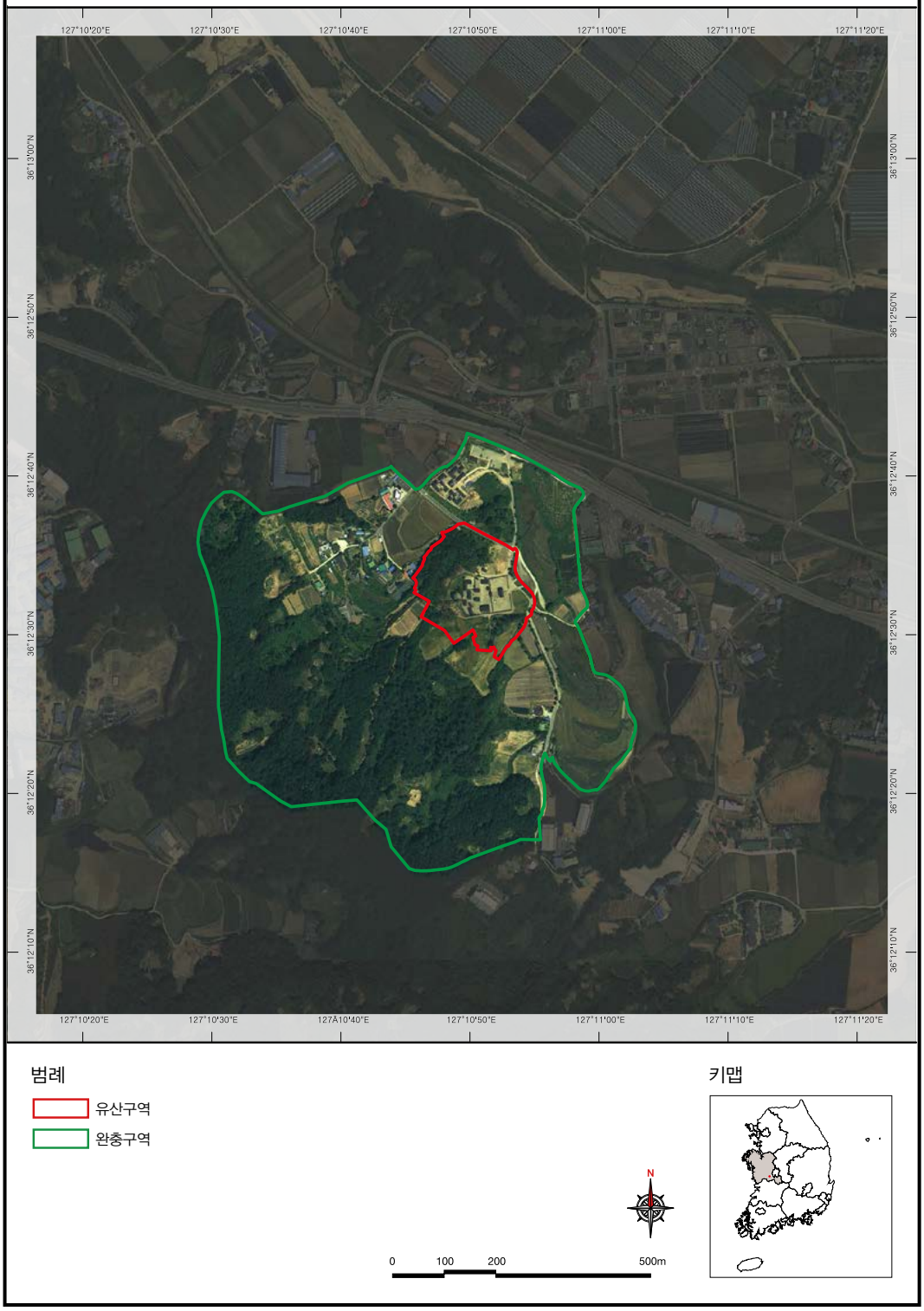
기록유산, 무형유산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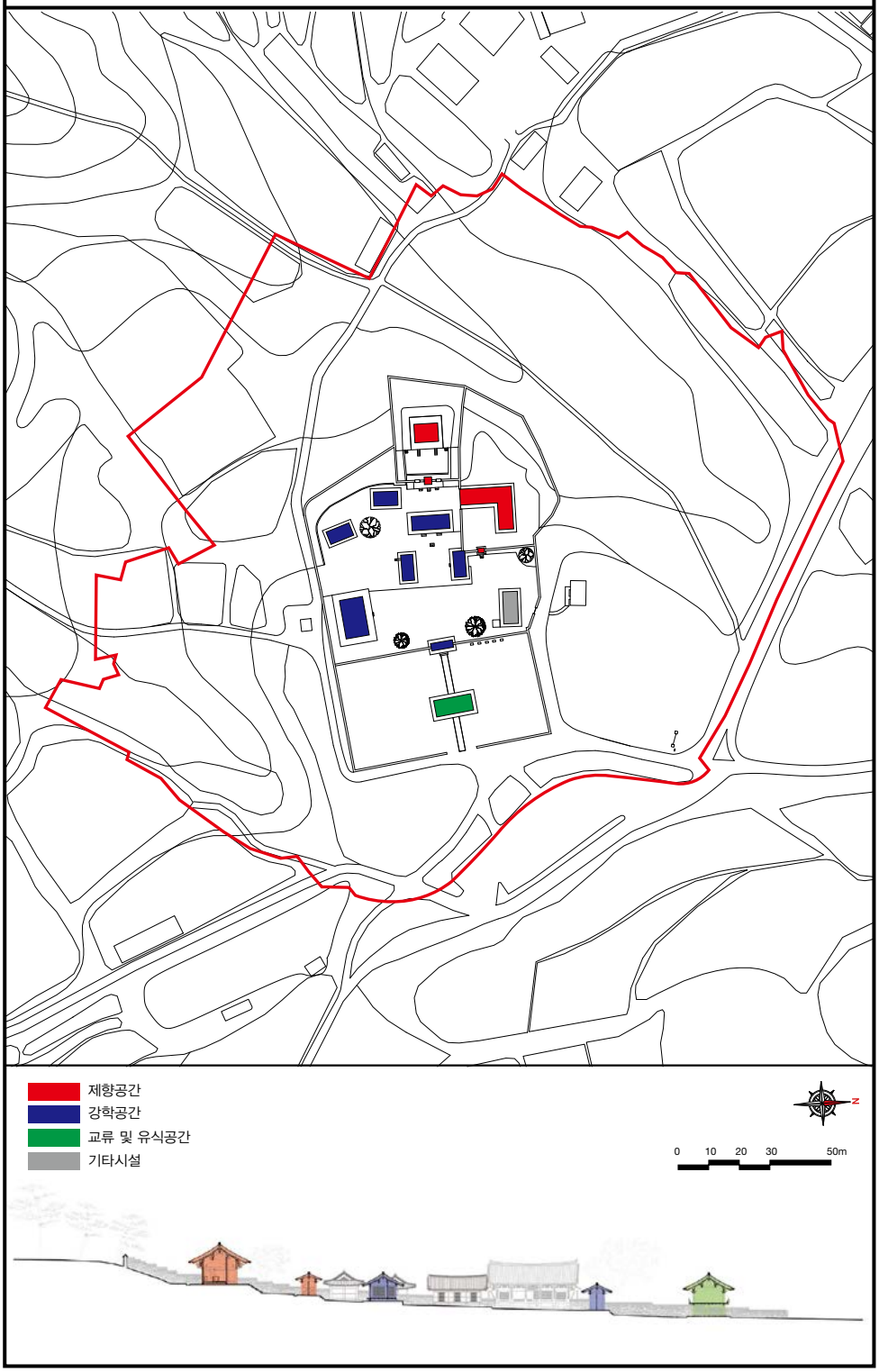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9. 돈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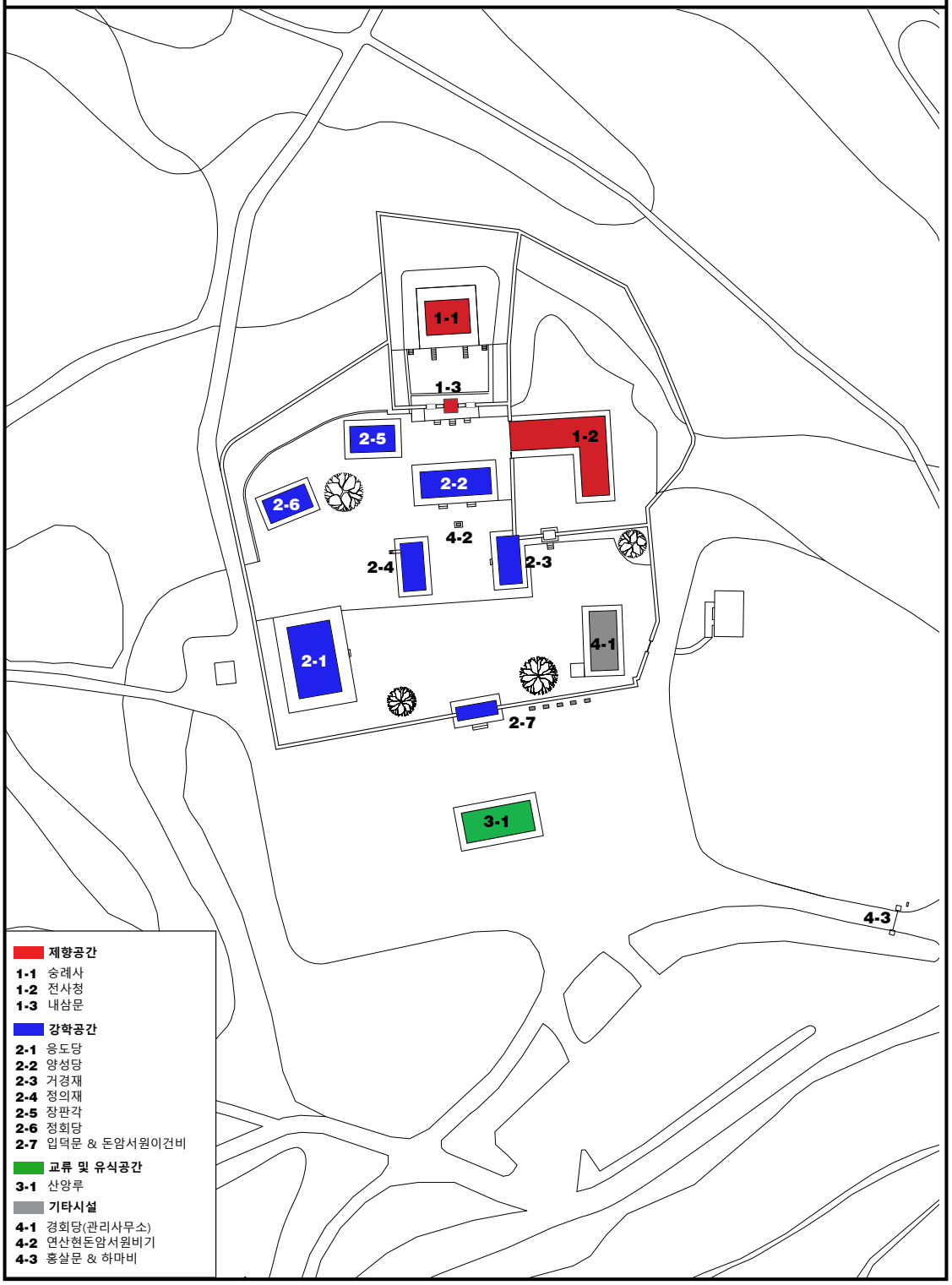
● 유산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1-1
1-3
1-2
2-5
2-2
2-6
4-2
2-4
2-3
2-1
4-1
2-7
3-1
4-3
제향공간
1-1 숭례사
1-2 전사청
1-3 내삼문
강학공간
2-1 응도당
2-2 양성당
2-3 거경재
2-4 정의재
2-5 장판각
2-6 정회당
2-7 입덕문 & 돈암서원이건비
교류 및 유식공간
3-1 산앙루
기타시설
4-1 경회당(관리사무소)
4-2 연산현돈암서원비기
4-3 홍살문 & 하마비

1) 건축물

제향공간

1-1 1-2 1-3

숭례사(1-1)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5호.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김장생을 중심으로 김집·송준길·송시열이 배향되어 있다.
전면 1칸통(間通)을 개방하여 집채의 앞쪽에 다른 기둥을 세워 만든 조그마한 칸살인 전퇴(前退)를 두었고, 실내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전사청(1-2)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된 곳이다. 1고주 5량에 홑처마 팔작지붕 형식이다.

내삼문(1-3)

사우의 진입문이다.

강학공간

2-1 2-2
2-3 2-4
2-5 2-6
2-7

강당 : 응도당(2-1)

보물 제1569호. 서원의 강학 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한국 서원 중에서 가장 큰 강당 규모이며, 고대 예서에서 언급된 하옥제도를 서원의 특성에 맞게 배향자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장생 사후 건립된 건축물이다. 1634년(인조 12)서원 창건시 건축하였고 강학 공간으로 사용 및 호서 사림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그 특징은 평면구성에서 중당(中堂)과 동서상(東西廂), 중당 뒤에 실(室)과 좌우 방(房)과 동서 협실(夾室)을 두는 것이며 지붕은 맛배지붕 형태에 양 측면에 덧지붕의 일종인 '영(榮)'을 두는 것이다. 현재 응도당은 내부 바닥 일부 및 창호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인 평면구성이나 영 등이 잘 남아있다.

강당 : 양성당(2-2)

배향자가 생전에 강학활동을 했던 건축물이자 배향자 사후 강학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1634년(인조 12) 서원이 초청될 때, 바로 이 양성당이 있었던 터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 연산으로 내려와 양성당(養性堂)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양성당은 김장생을 따르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유생들이 모여 강학하던 서재이다.

재사 : 거경재(2-3), 정의재(2-4)

거경재와 정의재는 양성당 전면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양성당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거경재, 왼쪽이 정의재이다. 이 건물들에서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동재인 정의재와 서재인 거경재는 마주보고 서있으며 두 건물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원래 두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잇었던 것이 아니라 응도당의 중당 좌·우 중앙칸에 현판을 걸고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물은 1997년에 신축되었다.

도서관 : 장판각(2-5)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돈암서원의 이건 이후 1926년에 경내에 최초로 건립되었다. 장판각은 사계 김장생의 전서와 신독재 김집의 전서, 그리고 유고 등의 모든 저서를 합쳐 보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배향자관련 : 정회당(2-6)

정회당은 본래 김장생의 부친인 김계휘가 1557년(명조 12) 낙향하여 고운사의 경내를 빌려 향촌고화를 위해 강학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다. 『돈암서원지』의 기록에 의하면 고운사 경내를 빌려 운영되던 정회당은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1882년(고종 19) 대둔산 대승사에 재건되었는데 1950년대 현재의 돈암서원 경내로 이건되었다.

기타 : 입덕문 & 돈암서원이건비(2-7)

서원의 외삼문으로 1880년(고종 17) 서원 이건 당시 구지에서 옮겨져 왔다. 이건 당시에는 현 양성당 앞에 배치되었다. 응도당이 이건되면서 서원 영역의 밖에 배치하게 되자 1974년 외삼문을 응도당 앞으로 이건하여 응도당을 포함하면서 서원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산앙루(3-1)

서원 내외부 사림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누마루이다. 산앙루는 원래 구 서원이 이건되면서 전사청의 대청에 상부에 현판만이 걸려 있다가 2006년 돈암서원 입덕문 앞 쪽으로 신축되어 자리잡았다. 산앙루는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기 타

4-1 4-2 4-3

경회당(관리사무소)(4-1)

경회당은 원래 1960년대 신축된 고직사 건물로 당시 전사청의 노후로 고직사를 새로 짓고 전사청은 제기를 보관하고 제향 준비를 하는 곳으로 독립시키면서 관리사는 관리인이 생활 할 수 있는 평면 형식으로 서원 밖에 건립되었다. 이후 1971년 응도당이 이건되어 이어 1973년 외삼문이 이건되면서 서원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경회당은 1997년 관리자가 거주하지 않아 부재들이 부식되고 지붕이 탈락되어 재축하였다. 현재는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연산현돈암서원비기(4-2)

돈암서원이 1880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게 된 배경, 경위, 과정을 기록한 비이다. 본래 돈암서원은 배치상 사우 앞에 강당인 돈암서원 응도당이 있었고, 양옆으로 서재인 거경재(居敬齋)와 정의재(精義齋)가 있었으며, 양성당은 왼쪽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건 과정에서 서원 배치가 흐트러져 현재는 사우 앞에 건물을 지어 정의재, 양성당, 거경재라는 편액만 걸어놓았고, 왼쪽으로 돈암서원 응도당을 배치하였다. 사우祠宇는 원래 서원의 재목을 실어다가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건물은 재목을 바꾸어 고쳐지었다. 이러한 돈암서원의 이건 경위, 과정을 연재 송병선이 기록하여 비를 세워 새겨 놓았다.

홍살문 & 하마비(4-3)

서원의 입구를 알려준다.

| 고문서, 고서, 책판 |

돈원구적 遯院舊跡

년대 : 1632년(인조 10) ▪ 크기 : 66.5×42.5

1632년(인조 10) 돈암서원 창건 당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여러 향교와 서원, 그리고 사림들에게 발송한 통문(通文)이다. 윤전(尹銓, 1575~1636)을 비롯한 56인 유사(有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원래는 하나의 문서였던 것을 여러 장으로 분리하여 성책(成冊)하였으며,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필적이다.

신독재선생봉안시유생내회록
愼獨齋先生奉安時儒生來會錄

년대 : 1658년(효종 9) ▪ 크기 : 37×26.5

1658년(효종 9)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을 추배할 당시 참석한 유생들의 명단으로 총 323명의 관직과 이름, 생년과 자(字), 그리고 출신지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돈암서원의 학맥과 인맥,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이다.

원중구적 院中舊跡

년대 : 1688(숙종 14) ▪ 크기 : 66.5×42.5

1688년(숙종 14) 돈암서원에 송준길을 추배할 때 참석한 유생들의 명단으로 총 180명의 관직과 이름, 자(字)와 생년, 그리고 출신지가 쓰여 있다. 17세기 후반 돈암서원의 사회적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돈암서원재임안 遯巖書院齋任案

년대 : 1738~1846년 ▪ 크기 : 36.5×24.5

1738년부터 1846년까지 108년 동안 돈암서원 운영을 담당했던 원장(院長)을 비롯한 장의(掌議), 유사(有司), 직월(直月 등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원장으로는 이조판서 이재(李縡, 1680~1746)를 시작으로 박필주(朴弼周, 1665~1748)와 송환기(宋煥箕, 1728~1807) 등 모두 7명이 기록되어 있다.

재중기부 齋中記簿

년대 : 무오 3월 ▪ 크기 : 34.5×20.5

돈암서원에 보관된 서책(書冊)과 제기(祭器), 각종 기물의 목록과 수량을 정리해둔 것으로 각종 성리서와 예서(禮書), 문집류 등으로 다양한데 항목마다 수량과 보관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별도의 항목을 두어 유실된 서책의 현황과 사유도 첨부하였다.

돈암서원전답양안 遯巖書院田畓量案

년대 : 1781년(정조 5) ▪ 크기 : 35.5×25.5

돈암서원의 경제 기반을 알려주는 자료로 서원 전답의 현황 총록이다. 전답의 위치와 넓이, 도조로 받은 액수 등을 기입하였다.

돈암서원학계안 遯巖書院 學契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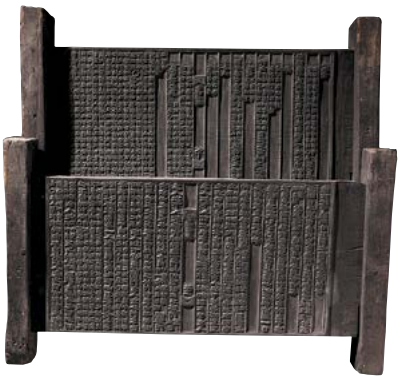
년대 : 1886년(고종 23) 5월 ▪ 크기 : 32.5×23

돈암서원에서 학계(學契)를 만들어 운영한 규칙으로 6개조의 절목에 매년 1회 향음주례를 행한 뒤 강회(講會)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비용과 임원 선발, 서책 관리 등에 관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충청관찰사 심상훈의 300량 지원 내용과 수결, 관인이 찍혀 있다.

절목 節目

▪ 년대 : 1892년(고종 29) 2월 ▪ 크기 : 37×25.2

돈암서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련한 절목으로 제향과 강학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폐단을 막고자 하며 이 절목을 서원과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례비요 책판 喪禮備要 冊板

▪ 년대 : 1648년(인조 26) ▪ 크기 : 51×34(2책)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신의경(申義慶, 1557~1648)이 저술한 1권 1책을 1620년(광해군 12)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증보하고 속례를 첨부하고, 1648년(인조 26) 아들 김집(金集, 1574~1656)이 다시 교정하여 2책으로 간행하였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특히 서인-노론계의 예학적 정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저술이다.

가례집람 책판 家禮輯覽 冊板

▪ 년대 : 1685년(숙종 11) ▪ 크기 : 60.5×30.5

가례집람(家禮輯覽)은 10권 6책으로 가례 본문을 중심으로 예서와 여러 학자의 예설을 주석으로 삼아서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편찬한 것으로 1685년(숙종 11)에 간행되었다. 권1은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 권3은 혼례(婚禮), 권49는 상례(喪禮), 권10은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사계유고 · 사계연보 · 사계전서 책판
沙溪遺稿 · 沙溪年譜 · 沙溪全書 冊板

- 년대 : 1792년(정조16), 1922년
- 크기 : 사계유고 50×31.5, 사계연보 50.5× 23,
  사계전서 50×28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집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이중 3, 4차 간행이 돈암서원에서 이루어졌다. 1688년(숙종 14) 경에 호남에서 2차 간행된 지 약 100여년이 지난 1792년(정조 16)에 3간본이 돈암서원에서 간행되었으며, 이 때 사계선생연보도 함께 만들어졌다. 4간본 사계전서는 1922년 돈암서원에서 후손들이 51권 2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4차본에는 기존의 유고 13권과 경서변의, 근사록석의, 전례문답, 가례집람, 상례비요, 의례문해 등의 저작과 유고에서 누락되었던 시문을 수록하고 부록에 연보를 합하였다.

신독재유고와 신독재전서 책판
愼獨齋遺稿 愼獨齋全書 冊板

- 년대 : 1710년(숙종 36), 1924년
- 크기 : 54×29.5, 51× 27.5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문집은 돈암서원에서 2차례 간행되었다. 초간은 1710년(숙종 36)에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 15권 7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는 1924년 20권 9책으로 간행되었다.

돈암서원 遯巖書院

▪ 년대 : 1660년(현종 1)　▪ 크기 : 85×230

사액 현판으로 '돈암(遯巖)'이란 원래 서원이 위치한 곳 가까이 있던 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사액 현판의 글씨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썼다고 하며, 서원 정문인 입덕문(入德門)에 걸려 있다.

숭례사 崇禮祠

▪ 년대 : 현대　▪ 크기 : 65×200

돈암서원의 사우 현판으로 '숭례(崇禮)'는 예를 높인다는 의미인데, 군자가 덕을 닦고 학문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문묘에 종향된 김장생(金長生, 1548~1631), 김집(金集, 1574~1656),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유경사(唯敬祠)라 부르기도 한다.

연산돈암서원상량문 連山遯巖書院上樑文

▪ 년대 : 1633년(인조 11) 3월　▪ 크기 : 37×103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지은 돈암서원 창건시의 상량문이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성품과 학문, 그리고 많은 후학들이 따랐음을 칭송하고 이어 서원을 세운 내력과,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강학과 장수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정회당 靜會堂

▪ 년대 : 17세기 초 ▪ 크기 : 44×107

정회당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아버지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낙향한 후 연산현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정회(靜會)'란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로 이 정회당이 훗날 돈암서원을 건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글씨는 이 일대에서 명필로 알려진 김예산(金禮山)이 8세에 쓴 것이다.

양성당 養性堂

▪ 년대 : 1602년(선조 35) ▪ 크기 : 55×150

현재 돈암서원 강당 현판으로 김장생이, 스스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자, '오랫동안 힘들어 본성을 기른다'는 의미를 부여한 당호이다. 이건 과정에서 현판만 전해지던 것을 현재 위치로 서원을 이전하면서 새 강당에 게판하였다.

양성당기 養性堂記

▪ 년대 : 1603년(선조 36) ▪ 크기 : 45×100

정엽(鄭曄, 1563~1625)이 김장생의 부탁으로 1603년(선조 36)에 지은 양성당기문으로 양성당 주변의 경관과 함께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 그리고 '양성(養性)'의 의미처럼 학문의 큰 줄기가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양성당제영 養性堂題詠

▪ 년대 : 17세기 전반 ▪ 크기 : 45×120

김장생이 1602년(선조 35) 고향으로 돌아와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옛날의 시를 다시 걸고 17세기 전반 당시의 저명한 인물 19명에게 차운(次韻) 시(詩)를 받아 게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장생과 양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인적 교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양성당십영 養性堂十詠

▪ 년대 : 17세기 후반 ▪ 크기 : 45×150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은 김장생이 양성당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읊은 것으로 이 현판에는 이단하(李端夏 1625~1689), 황혁(黃赫, 1551~1612), 장유(張維, 1587~1638) 등 저명인사들의 시문詩文이 기록되어 있다.

아한정제영 雅閑亭題詠

▪ 년대 : 1881년(고종 18) ▪ 크기 : 40×127

양성당의 전신인 아한정은 원래 최청강(崔淸江)의 별서(別墅)였다. 이 현판에는 아한정에 관한 김국광(金國光, 1415~1480),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송익필(宋翼弼, 1534~1599), 김은휘(金殷輝, 1541~1611) 등이 지은 시문이 판각되어 있다. 글의 말미에는 최청강의 후손 최창환(崔昌煥)이 아한정 건립과 여러 시가 전해오는 유서를 설명해두고 있다.

응도당 凝道堂

▪ 년대 : 미상 ▪ 크기 80×185

돈암서원 큰 강당의 현판으로 '응도(凝道)'란 덕을 닦고 학문을 모아 성취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원래 돈암서원 강학 활동의 중심으로, 옛 건물의 제도를 제대로 본받아 지은 것으로 응도당은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되었다

| 주련 등 |

양성당

정기의관존기첨시(正其衣冠尊其瞻視)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눈길은 존엄하게 하라.
족용필중수용필공(足容必重手容必恭)
발 가짐은 반드시 정중하게 하고 손 자세는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출문여빈승사여제(出門如賓承事如祭)
문을 나설때는 손님을 뵈 듯 하고, 일 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듯 정성껏 할 것이며,
수구여병방의여성(守口如甁防意如城)
입 조심하기를 병(甁)과 같이 하고 뜻 방어하기를 성(城)과 같이 하라.

당사이존미타기적(當事以存靡他其適)
일에 임해서는 마음을 그 일에만 두며, 다른 곳에 두지 않도록 하라.
유정유일만변시감(惟精惟一萬變是監)
오직 정성스런 마음을 하나로 하면 만 가지 변화를 보살필 수 있다.

응도당

망망감여, 부앙무근(茫茫堪輿, 俯仰無垠)	망망한 천지여, 굽어보고 쳐다보아도 끝이 없다.
이어기간, 묘연유신(人於其間, 渺然有身)	사람 그 사이에서, 가물가물하게 몸을 두고 있다.
시신지미, 태창양미(是身之微, 太倉粱米)	이 몸의 보잘 것 없음, 태창의 쌀 한 톨이로다.
참위삼재, 일유심미(參爲三才, 曰惟心爾)	삼재에 참여하니,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네.
주고래금, 돈무비심(往古來今, 孰無此心)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가 이 마음이 없겠는가만,
심위형역, 내수내금(心爲形役, 乃獸乃禽)	마음이 몸의 부림 당하니, 바로 금수로다.
유구이욕, 수록동정(惟口耳目, 手足動靜)	오직 입 귀 눈, 손발의 동정이,
투간저극, 위궐심병(投間抵隙, 爲厥心病)	사이에 의탁하고 틈에 던지니, 마음의 병이로다.
일심지미, 중용공지(一心之微, 衆欲攻之)	한 마음 보잘 것 없음, 여러 욕심이 공격하니,
기여존자, 오호기희(其與存者, 嗚呼幾希)	그 더불어 보존된 것이, 아아! 드물도다.
군자존성, 극념극경(君子存誠, 克念克敬)	군자 정성 보존하여,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으면,
천군태연, 백체종령(天君泰然, 百體從令)	천군(마음) 태연하고, 모든 지체 천명 따른다네.

출처 : 범준(范浚)의 〈심잠(心箴)〉

산앙루

송백입동천(松栢入冬靑) 소나무 잣나무는 겨울에 들어 더욱 푸르니
방능견세한(方能見歲寒) 비로소 추운 겨울이 온 것을 볼 수 있네
성수풍리청(聲須風裡聽) 소리는 모름지기 거친 바람 속에서 들어야 하고
색경설중간(色更雪中看) 그 빛깔은 눈 속에서 보아야 새로워 진다네

출처 : 소강절 세한(歲寒)

월도천심처(月到天心處) 달은 하늘 중간에 떠 있고
풍래수면시(風來水面時) 바람은 물결 위에 찰랑인다.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 이러한 맑은 기분을
요득소인지(料得少人知) 아는 이 적으리라

출처 : 소강절 청야음(淸夜吟)

숭례사 꽃담

김장생의 사상은 열두자의 글씨를 통해 생생히 밝혀졌다. 글귀는 '서일화풍(瑞日和風)', '지부해함(地負海涵)', '박문약례(博文約禮)'다.

'서일화풍'은 '서일상운(瑞日祥雲) 화풍감운(和風甘雲)'의 약자이니 '좋은 날씨 상서러운 구름, 부드러운 바람과 단비'의 뜻이다.

'지부해함(地負海涵)'은 땅이 온갖 것을 다 실어주고,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주듯 모든 것은 포용하라는 의미이다.

'박문약례(博文約禮)'는 지식은 넓게 가지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는 의미다. 공자는『논어』「옹야편」에서 '군자는 글을 널리 배우되 예로써 그것을 조이고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고 말했다. 지식은 넓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고 행위와는 무관하게 되지 않기를 경계한 것이다.

| 제향의례 |

장의회의(掌議會議)에 제관 결정을 위임하는 돈암서원(遯巖書院)

충남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강학 유서를 기려 1634년(인조 12)에 창건되었으며 1659년에 사액 받았다. 돈암서원은 예학의 산실로, 주향으로 모신 김장생을 비롯한 김집(金集),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등은 조선시대 예학(禮學)을 집대성한 인물들이었다.

돈암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앞두고 장의회의를 여는데, 이때 임원진 10여 명이 모여 향사를 진행할 제관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망기에 해당하는 천장(薦狀)을 만들어 각 제관의 집으로 발송한다. 돈암서원의 향사 절차는 여느 서원과 같으나, 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우의 신위 앞에서 고종 임금이 하사한 벼루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쓰고, 옥등잔에 불을 밝힌 채 제향을 봉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관 위촉장인 천장(薦狀) 작성

돈암서원에서는 향사 40여일 전에 이미 원장이 주재하는 장의회의에서 헌관 및 집사 천망을 하는데, 삼헌관은 원장에게 위임하고, 집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선임된 제관에 대하여는 제관으로 천망한다는 내용의 천장(薦狀)을 써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3변 3두의 진설

대부분의 서원이 4변 4두인데 반해, 돈암서원에서는 3변 3두로 진설한다. 3변에는 녹포와 능인 대신에 육포와 은행을 담고, 황율로 밤을 담는다. 3두에는 녹해 대신에 조기를 담고, 청저로 무, 구저로 부추를 담는다.

향사 전 사우 앞에서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놓기

돈암서원에서는 향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내사연(內賜硯)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놓는다. 이 벼루는 옥등잔과 같이 서원이 특별히 보물로 간직해 오는 것으로 제향 때에만 사용한다.

향사 봉행 전 옥등잔 불 밝히기

돈암서원에서는 사우의 신위 앞에서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옥등잔에 불을 밝히고 향사를 봉행한다. 이 등잔은 왕실에서 하사한 벼루와 함께 서원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근래 향사에는 등잔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상징적으로 신위 앞에 놓는다.

서문으로 나오는 헌관

돈암서원에서는 헌관 및 집사는 모두 동쪽 계단으로 오르내리지만, 사우의 출입은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서쪽 문으로 나온다. 다만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가지고 나올 때에만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